

고구려 · 발해사의 상관성 연구와 과제

한규철¹⁾

目 次

- I. 머리말
- II. 두 왕조의 계승성에 관한 연구사
- III. 영토적인 측면의 계승에 관한 문제
- IV. 주민계승에 관한 문제
- V. 문화계승에 관한 문제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사에 있어서 다른 왕조사와 달리 고구려와 발해사는 두 왕조사의 상관성 내지 계승 관계들²⁾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주제가 되어 있다. 신라와 고려사라든지, 고려와 조선사의 경우는 두 왕조의 계승관계들 따져보는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있다고 해 보아야 두 왕조간의 정치·제도상의 차이를 분석하든지 지배세력의 성격 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고려가 ‘귀족국가’였는가 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구려·발해사의 계승관계와 유사한 연구라고 한다면 고려왕조의 계승관계들 따져 보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즉 고려의 신라계승성과 고구려계승성이라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강했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논급한 연구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가 신라인과 다른 종족이 아닐진대 고려의 고구려계승성을 주장하는 것은

1) 정성대 사학과

2) 고구려와 발해사의 계승관계에 대한 용어는 지금까지 주로 ‘繼承(性)’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 표현은 지나치게 두 왕조의 종족적 성격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되어 보다 廣義的인 ‘相關(性)’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일정하게 역사적 계기성을 결여한 부분이 없지 않다.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고 고려 왕조의 개창은 이보다 230년이 지난 900년 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토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려의 왕조적 계승관계는 직전 왕조인 신라계승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왕조가 그 국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점은 경주 수도의 직전 왕조인 신라와의 차별성을 의식한 부분이 있었고 대신라(통일신라)가 부족했던 고구려계승의식의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발해가 고구려영역에서 태동된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발해사의 상관관계 내지 계승성을 따져 보는 것은 두 왕조의 역사적 실상을 복원하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필자나 북한과 같이 발해는 다수의 고구려인에 소수의 말갈인으로 구성된 왕조라는 주장과 함께,³⁾ 일본과 한국학계와 같이 발해국의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고구려와 다른 말갈인들의 왕조였든지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발해국은 고구려와 전혀 다른 말갈인들의 왕조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차가 나타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기록의 부재와 불일치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발해사에 있어서는 正史類의 기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체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舊唐書』, 『新唐書』, 『渤海傳』도 그 성격과 주민구성 등에 있어서 양자가 달리 볼 수 있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두 왕조의 계승성 및 상관성에 관한 연구과정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영토적 계승과 종족 및 민족의 인적 계승문제, 그리고 언어와 풍속 등의 문화적 계승문제 등에 대한 문제와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필자와 장국종 등의 생각이 전적으로 같다고는 할 수 없다. 필자는 말갈의 타칭, 범칭설의 입장에서 '말갈'로 불리는 주민들의 본질이 고구려인이었으며, '말갈족'의 실체들 인정한다면 '흑수말갈'로 불리는 사람들 정도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의 장국종 등은 말갈의 범칭, 비칭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구려땅에 건국된 발해라는 점을 전제('발해본토')로 발해주민 중에 말갈인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일정하게 '말갈족'의 실체들 일정하게 인정하면서 이들은 발해 주민의 소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다. 韓圭哲, 「高句麗時代の 聯屬研究」, 『釜山史學』14·15합, 1988, 韓圭哲, 「渤海國의 住民構成」, 『韓國史學報』創刊號, 고려사학회, 1998,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1994, 韓圭哲, 「渤海國의 高句麗 繼承性—古墳과 住居文化를 中心으로—」, 『선사와 고대』9, 1997, 韓圭哲, 「古墳文化를 통해 본 渤海國」, 『國史館論叢』85, 國史編纂委員會, 1999, 韓圭哲, 「발해의 고구려 역사 계승 문제」, 『韓國古代史研究』33, 2004, 장국종, 「발해본토의 주민구성」, 『역사과학』, 1991- 2, 장국종, 「발해본토인 말갈인의 분포상태」, 『역사과학』, 1991- 4, 장국종, 「발해의 주민구성」, 『발해사연구논문집』1, 1992, 장국종, 「발해사성립과 주민」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4) 일본학계는 발해의 주민구성을 말갈로 보는 견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白鳥庫吉 이래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별개로 보는 견해가 동설로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한국학계에서 받아들인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II. 두 왕조의 계승성에 관한 연구사

두 왕조의 계승성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로부터 출발하여 현대에는 남북한 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발해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전근대 역사연구서들의 어느 곳도 고구려와 발해사의 계승관계를 구체적으로 논급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 공통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두 왕조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朝鮮時代 柳得恭(1749~?)은 신라와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는 ‘남북국시대’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학계에서 신라와 발해를 한국사의 한 시대인 ‘남북국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유득공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삼국시대’에 이은 ‘남북국시대’를 설정하는 근본 원인은 북국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득공의 『渤海考』 序文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고려가 펼치지 못함을 알게 한다. 옛날에 고씨는 북쪽에 살며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는 서남쪽에 살며 백제라 하였고, 박 석 김씨는 동남쪽에 살며 신라라 하였는데, 이를 삼국이라 한다. 그 삼국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마땅한데 고려가 이를 편찬한 것은 옳은 일이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차지했고, 대씨가 그 북쪽을 차지했는데 이를 발해라 한다. 이를 남북국이라 할 수 있으니 남북국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남북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고구려 사람이고 그들이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곧 고구려의 땅이다

高麗不修渤海史 知高麗之不振也 昔者高氏居于北 曰高句麗 扶餘氏居于西南 曰百濟 朴昔金氏居于東南 曰新羅 是爲三國 宜其有三國史 而高麗修之是矣 及扶餘氏亡 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 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非矣 夫大氏者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 其所有之地何地也 乃高句麗之地也

유득공에 이어 韓致堯(1765~1814)도 그의 『海東繹史』 「世紀」에서 발해사를 단군 기자 · 위만조선과 三韓 濊 貊 夫餘 沃沮와 高句麗 百濟 新羅 및 고려와 같은 위치에서 서술하였는가 하면, 洪奭周(1774~1842)도 『東史』 세가 중의 『渤海世家』에서 발해사를 한국사(동사)의 체계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丁若鏞(1762~1836)도 발해의 한국사적

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韓致齋와 洪奭周의 「海東繹史」와 「渤海世家」를 참고하였던 「疆域考」에 「渤海考」와 「渤海續考」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金正浩(? ~ 1864)도 그의 「大東地志」에서 신라와 발해의 공존시기를 남북국시대라고 이해하고 있었다.⁵⁾

金正浩는 남북국의 통일을 고려가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고려가 발해사를 통일하였다고 하면서 일부는 거란과 여진이 되었다고도 하나, 고려의 한국사적 정통성도 인정하고 있다.

실학시대 발해사가 한국사에 적극적으로 기록되게 된 이유는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사조와 연관을 갖는다. 즉,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성리학적 가치체계가 붕괴되어 나감에 따라 성리학에 입각한 전통적인 역사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던 분위기에서 발해사가 적극적으로 한국사의 체계에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실학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사의 독자성 확보와 중국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국사 전개라는 정통론의 새로운 적용 등이 나오면서부터였다.⁶⁾ 아울러 그들이 발해의 한국사화에 적극적이었던 원인은 한국사의 민족적 공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자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던 면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⁷⁾

발해의 고구려적 의미에 대해서 조선시대 학자들 이후의 경향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韓末과 독립운동기에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申采浩, 張道弼, 權應圭, 黃義敦을 들 수 있다. 신채호는 남북국시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扶餘高句麗史의 강조와 新羅 統一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사 속의 발해사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였는가 하면, 張道弼, 權應圭 등은 그들의 역사 개설서에 직접 「三國時代와 南北國」(張道弼)과 「南北朝」(權應圭)를 따로 서술하기도 하였다.⁸⁾

前近代에 있어서 朝鮮時代 知性들 외에 두 왕조의 상환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들이 제출된 것은 없었다. 오히려 淸 乾隆代의 「欽定滿洲源流考」(1739)는 고구려가 만주지역의 왕조에서는 제외되었다. 심지어 신라나 백제를 만주족의 기원에서 언급하면서도 고구려를 제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해적이고 반고구려적인 인식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말갈, 발해는 만주족의 조상으로 인식하여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⁹⁾

5) 한규철, 「고구려·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 『大東漢文學』26, 2007.6 참조.

6) 조광, 「조선 후기의 역사인식」,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1985.

7) 趙珩, 「朝鮮後期の 邊境意識」, 『白山學報』16, 1974.

8) 張道弼, 「國史」, 1916-1946: 『汕杭張道弼全集』卷1, 1981, 12~110쪽, 權應圭, 「朝鮮留記」, 京城尙文館, 1924; 「朝鮮史」, 京城 正音社, 1945년 改名再刊,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 인식 시고」, 『한국사연구』15, 1977, 박영식, 「단재 신채호의 만주관」, 『단재 신채호 선생 100주년기념논집』, 1980, 韓圭哲, 「新羅와 渤海의 政治的 交涉過程-南北國의 事인파견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43, 1983, 131쪽, 金瑛河, 「丹竊 申采浩의 新羅三國統一論」, 『民族文化研究』17, 1983.

9) 「滿洲源流考」는 卷1 : 肅慎, 夫餘, 卷2 : 挹婁, 三韓, 勿吉, 卷3 : 百濟, 卷4 : 新羅, 卷5 : 靺鞨.

두 왕조의 계승성을 본격적으로 논급한 근대적 연구는 북한으로부터였다. 이것은 1963년부터 2년간 북한과 중국이 고구려 발해유적을 공동발굴하고 부터였다.¹⁰⁾ 이후 북한에서는 박시형 등이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본격적으로 논급하기 시작하였다.¹¹⁾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과 중국의 유적을 통해서 고구려와 발해를 고고학적으로 보다 적극 비교 검토할 수 있었던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었던가 한다. 아울러 북한이 이토록 발해의 고구려계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70년대 이후 모든 학문의 기준이 되었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도 두 왕조의 계승성을 본격적으로 논급하기 시작한 것은 필자로부터였다. 이것은 북한의 영향과 함께 중국 학자들이 발해를 ‘당나라 지방정권’이자 고구려와 관련이 없는 ‘말갈국’이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반작용이 컸던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발해를 말갈국가로 보는 중국 학계는 고구려와의 상관성을 애써 관심을 표현하지 않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논고들은 발해와 고구려의 계승성을 밝히는 남북한 몇 편의 글들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는가 하면, 발해의 고구려계승성을 밝히는 논고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다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주장들을 펴가며 비판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학자들은 남북한 학자들의 고구려계승국인 발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 그 논리의 기본정신이 되었던 유득공의 ‘南北國時代’論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 실학적 자각의식에 입각하여 대두된 ‘南北國時代’論을 영토적 야욕을 갖는 ‘虛妄愚念’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신랄히 비판하기도 하였다.¹²⁾

두 왕조의 계승성에 대해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였다. 최근 고고학적 성과에 의거해 고구려적 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견해를 갖는 일본의 경우에는 발해의 다민족국가설에 입각하여 ‘지배층은 고구려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설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발해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록의 부재나 한계가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인접국이라는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학문외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 아닌가 한다.

卷8：渤海，卷7：完顏，遼，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11) 박시형, 「발해사연구를 위하여」, 「역사과학」, 1962-1, 주영현,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고고민속」, 1967-2, 주영현,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1.

12) 孫王良, 「柳得恭與『渤海考』」, 「學習與探索」, 1986-6, 王健群, 「『南北國時代論』糾纏」, 「社會科學戰線」, 1995-2.

III. 영토적인 측면의 계승에 관한 문제¹³⁾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록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고대의 영역개념이 國境線이라는 선 중심이 아닌 墟이라는 점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영역은 불변의 고정상태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구려의 영역은 5부제 정도로 기능될 뿐 발해와 같이 5경 15부 62주와 같은 구체적 지방편제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도 비교가 곤란한 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와 발해의 강역은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 점에서 두 왕조의 계승관계도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고구려영역과 겹치지 않는 만큼 두 왕조의 친연성이나 계승관계를 논급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이거나 이질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강역은 「삼국사기」 지리지나 광개토왕비문 등에 입각하여 그 최대영역을 짐작해 보는 것이 모두가 아닌가 한다. 700여년이 넘는 국가발전의 시기에 있어서 廣開土王이나 長壽王代가 그 시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광대했던 때였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三國史記」와 같은 正史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성기의 지방편제가 발해와 같이 자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발해의 영역에 대해서는 「新唐書」는 5경 15부, 62주의 명칭과 함께 15부 중 10부의 위치에 대해서 肅慎故地, 濊貊故地, 沃沮故地, 高麗故地, 夫餘故地, 挹婁故地, 率賓故地, 拂涅故地, 鐵利故地, 越喜故地 등으로 밝히고 있어 그 대강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肅慎故地나 挹婁故地, 拂涅故地, 高麗故地 등이 정확하게 지금의 어디를 가리키는 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발해사 연구자들이 발해가 고구려의 영역에 비해 1.5배 내지 2배가 되었다고 하던 고구려연구자들은 선뜻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대안을 선뜻 제시하지도 못하는 예가 많지 않은가 한다. 두 왕조의 강역의 대강을 짐작케 하는 25史와 「通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¹⁴⁾ 四方 2千里나 4千里나 하는 기록들을 과연 어느 정도 믿어야 할 지 의문스럽기는 하다. 1리의 거리도 그렇거니와 전해들은 영토에 관한 지식이 기록에 반영된 것이어서 상당히 막연한 크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의 시기별 영역변천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보지만, 발해의 영역에 대해서 「(四)方2千里」라고 하는 「舊唐書」와 「方5千里」라고 하는 「新唐書」의 차이도 혼선을 갖고 있다.

이로 볼 때, 「後漢書」 및 「北史」 등의 고구려 영역은 사방 2천리를 넘지 못하고 있

13) 한규철, 「발해의 영역에서 본 고구려계승성」, 『高句麗研究』22, 2008.9.

14) 宋基豪, 「渤海의 盛衰와 疆域」(『白山學報』47, 1996, 276쪽)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通典 내용은 필자가 추가하였음.

다. 그러나 『舊唐書』에서는 東西 3100里 南北 2千里로 넓게 보고 있으며,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通典』에서는 초기의 영역을 漢代에는 方2천리였다고 하고, 중기의 魏晉南北朝代 에는 점점 좁아져 겨우 1천리에 불과했으나, 7세기의 隋代에 이르러서는 東西6천리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¹⁵⁾ 기록상의 최대영역은 南北 2千里 東西 6千里가 된다. 이를 사방으로 평균하자면 方 4千里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해가 方 5千里이니 高句麗가 渤海보다 방1천리가 넓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발해의 사방 길이를 『舊唐書』가 方2千里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新唐書』가 발해를 方5千里였다고 하면서 '海東盛國'이라 하였든지 5京 15府 62州 등의 편제가 비교적 자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方 5000리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세기 장수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구려의 최대 영역은 여러 기록들과 廣開土王碑,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유산 등을 통해 볼 때, 서쪽으로는 遼河를 넘어 大凌河에까지 미쳤으나 요동반도를 포함하여 遼河를 國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북쪽으로는 陰陽開原까지를 포함하며, 북으로는 길림 지역을 포함해서 開原과 寧安을 잇는 선, 동쪽 끝은 琿春-寧安線, 남쪽은 牙山灣에서 烏嶺-迎日灣을 잇는 선까지였던 것으로 이야기되곤 한다.¹⁶⁾ 그러나 옥저의 동부지역으로도 인정되는 지금의 연해주 지역까지를 포함하였다고 인정되어 동쪽 끝은 寧安과 연해주 남단을 잇는 선으로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본다.

고구려의 전성기 최대 영역에 대해서는 요서경략과 북부여 지배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넓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고구려의 영역이라 함은 이른바 고구려의 직접통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곳이지만 구체적으로 지방편제가 어떠했는지는 모른다. 대개가 기록과 금석문 등을 근거로 당시 어느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한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고구려의 광대성을 언급하는 견해들은 고구려의 이른바 간접통치구역과 영향권(문화권) 등을 염두에 두고 그 범주를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구려시대의 고구려 영역이 현대적 의미인 '육지적 영토, 국내 수역, 영해 그리고 이들 덮고 있는 일정한 정도의 하늘인 영공을 포함하는'의미의 영토 개념은¹⁷⁾ 아니다. 간접지배 영역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국경 개념이란 線개념이었다기보다 域중심의 點개념이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적 국경의 의미가 위의 장수왕대 영역을 고구려의 최대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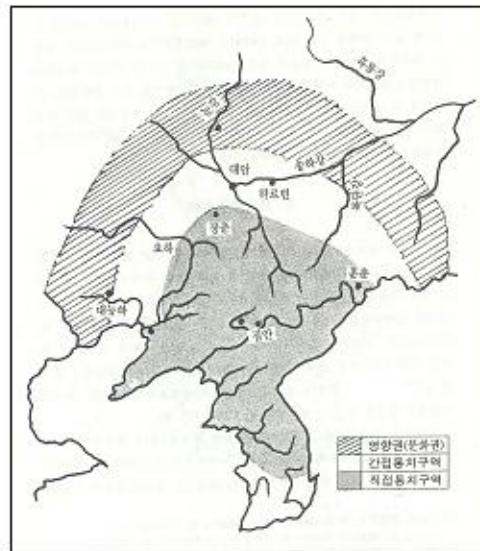
15) 『通典』卷186, 邊防2, 東夷下, “其地後漢時方二千里。至魏南北漸狹, 僅千餘里。至隋漸大, 東西六千里”

16) 千寬宇, 「廣開土王碑文再論」, 『全海宗博士華甲記念論叢』, 1977, 582-588쪽, 孔憲龜, 「高句麗領域 據史研究」, 1998, 申滢植, 「高句麗의 成長과 領域」, 『白山學報』47, 1998, 이인원,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김진광, 「발해의 영역」,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김동우,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17) 柳炳華, 「國際法上 領土의 概念 및 그 權限」, 『領土問題研究』, 創刊號, 1983, 74쪽.



< 그림 1 > 고구려 영역도
(이기백, 『韓國史講座』(古代篇), 1982)



< 그림 2 > 고구려 영역도
(『조선일보』, 1996.1.20)

발해의 영역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舊唐書』와 『新唐書』 내용이 대표적이다.

1. 그 땅은 영주 동쪽 2천리밖에 있어 남쪽은 新羅와 서로 닿고, 越喜靺鞨에서 동북으로 黑水靺鞨까지 地方이 2천리에 民戶가 十餘萬이며, 勝兵이 數萬명이다. 風俗은 고구려 및 거란과 같고, 文字 및 典籍도 상당히 있다(『舊唐書』卷 199下 北狄, 渤海靺鞨傳)¹⁸⁾
2. 땅은 四方 5천리에 戶口가 十餘萬이고 勝兵이 수만이며, 書契도 제법 알아서 扶餘·沃沮·弁韓·朝鮮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의 땅을 다 차지하였다(『新唐書』卷 219, 北狄, 渤海)¹⁹⁾

발해영역에 대하여 대표적인 발해사서인 위의 두 기록은 사방 2천리와 사방 5천리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戶는 십여만으로 각기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民戶 10여만이란 주로 5경을 비롯한 都城 중심의 인구들 의미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영역에 대한 차이는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와

18) “其地在營州之東二千里 南與新羅相接 越喜靺鞨東北至黑水靺鞨 地方二千里 編戶十餘 萬勝兵數萬人 風俗與高麗及契丹同頗有文字及書記” 북한의 리대희는 위의 ‘越喜靺鞨’ 앞에 ‘西接’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책들과 대조하여 보거나 문장뜻으로 보아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율희고지는 발해 때 安遠府와 懷遠府가 설치된 곳으로서 발해의 서쪽변방에 위치하였으므로 『舊唐書』의 기사에서 웅당 ‘서집’의 두 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리대희, 『발해사연구』(역사지리1), 1998, 13쪽.

19)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盡得扶餘沃沮并韓朝鮮海北諸國”

‘海東盛國’ 발해를 생각한다면 방 5천리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발해의 영역은 건국부터 멸망기까지 같은 크기였지는 않았다. 발해 영역의 변천은 발해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발해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 제10대 宣王代가 최대강역인 ‘海東盛國’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짐작하고 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거기에 동북쪽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발해의 영역은 제10대 宣王(818~830) 및 제13대 大玄錫代(871~894?)에 가장 넓었다고 하는데, 사방 5천 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 근대 국가의 영토가 선으로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아 발해의 영역은 남쪽이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이었고, 서쪽은 遼陽의 遼東에 미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북쪽은 대체로 흑룡강과 우수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거쳐 동쪽으로 연해주 남단에 펼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발해의 강역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西邊과 東北境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遼東이 발해 강역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발해의 西邊에 대해서는 鴨綠江 下流의 泊汜口와 新城[撫順]을 경계로 하는 의견이 있어 왔다. 특히 중국학계가 지금의 평양지역인 溟江[大同江] 이북과 황해도 서해안 지역을 모두 唐의 盧龍節度使 통치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발해를 보는 시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3>).²⁰⁾

그러나, 일부 중국 및 일본 학자들과 남북한 등에서, 海東盛國이었던 발해의 全盛0期에는 요동도 발해의 강역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²¹⁾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越喜部가 遼東에 있었는가 아니면 연해주 북단의 東北境에 있었는가의 문제가 있고,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요동이 발해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정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요동경계라 할지라도, 요하를 경계로 삼는 경우와 고구려의 천리장성 정도를 서쪽 경계로 삼기도 한다.²²⁾ 그러나 遼東의 千里長城이란 영역의 최전선 경계들을 의미한다기 보다 국경의 일선 방어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千里長城은 내륙중심의 기존 성곽체제와 해양방어체제를 하나로 묶는 복합적 방어체제의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따라서 고구려나 발해의 서쪽 경계는 요하까지로 보아,

20)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五冊, 地圖出版社, 1982, 78~79쪽.

21) 海東盛國 時期의 渤海가 遼東地域까지였음을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의 것들을 주목할 수 있다. 新妻利久, 「渤海國史及び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 東京電機大學出版局, 1969, 孫進己, 「渤海疆域考」 「北方論壇」, 1982-4, 魏國忠, 「渤海王國擁有遼東考」 「龍江史苑」, 1985-1; 「東北民族史研究」(2), 1995, 孫進己馮永謙 主編, 「東北歷史地理」第2卷,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손영중, 「발해의 서변에 대하여(1,2)」 「역사과학」, 1980-2,3, 魏國忠, 「渤海疆域變遷考略」 「求是學刊」, 1984-6, 姜태형, 「요동반도는 발해국의 영토」 「역사과학」, 1992-1, 韓圭哲, 「渤海國의 서쪽 경계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47, 부산경남사학회, 2008.

22) 전쟁기념관, 「발해를 찾아서」, 1998.

했을 때가 평균 四方 4,000里이고 발해는 四方 5,000里였으니 발해가 고구려의 1.5배 정도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에 제시된 두 왕조의 영역계산표인 <표1>과 <표2>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다.²⁴⁾

<표 1> 고구려의 영토 계산표

省	면 적	고 구 려 영 역
遼 寧 省	145,700 km ²	72,850 km ² (1/2)
吉 林 省	187,000 km ²	124,667 km ² (2/3)
咸 鏡 道	52,342 km ²	52,342 km ²
平 安 道	42,387 km ²	43,387 km ²
黃 海 道	16,744 km ²	16,744 km ²
江 原 道	16,897 km ²	16,897 km ²
京 畿 道	10,959 km ²	10,959 km ²
忠 清 北道	7,436 km ²	3,718 km ² (1/2)
慶 尙 北道	19,436 km ²	4,859 km ² (1/4)
합계(필자)	498,901 km ²	346,423 km ²

<표 2> 발해의 영토 계산표

	면 적	발 해 영 토
遼 寧 省	145,700 km ²	최소 약 49,000 km ² (1/3) 최대 약 73,000 km ² (1/2)
吉 林 省	187,000 km ²	약 150,000 km ² (4/5)
黑 龍 江 省	463,000 km ²	약 154,000 km ² (1/3)
沿 海 州	165,900 km ²	최소 약 53,000 km ² (1/3) 최대 약 165,900 km ²
咸 鏡 道	52,342 km ²	약 50,000 km ²
平 安 道	43,387 km ²	약 40,000 km ²
합계(필자)	1,057,329 km ²	최소 456,000 km ² 최대 592,900 km ²

24) <표1, 2> 고구려와 발해 영토계산표는 宋基素, 「渤海의 盛衰와 疆域」, 277~278쪽 참조.

고구려는 오늘날의 遼寧省 일부와 길림성 대부분(2/3),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도를 비롯해서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부들 포함해서 약 346,000 km²에 해당한다. 여기에 발해의 연해주 남부 최소 영역인 53,000 km²를 沃沮의 옛 땅으로 추가한다면 399,000 km²까지에 해당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발해의 영역은 좀 과소평가해서 위의 지역에서 黃海道와 江原道, 忠清北道와 慶尙北道를 제외하고, 黑龍江省 일부(1/3)와 沿海州의 일부인 1/3 정도만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456,000 km²가 된다. 발해가 고구려의 1.2배 정도가 됨을 알 수 있고, 발해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자면 최대 592,900 km²가 되니, 고구려의 1.5배 정도가 되는 셈이다. 사방 4,000리와 5,000리를 비교하는 숫치와도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발해가 최대 영역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는 동북지역의 흑수말갈 정복지역까지를 모두 합한다면 그 범위는 훨씬 넓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채태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흑수말갈 외에 다른 여러 말갈까지를 발해 영역으로 계산한다면, 고구려와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唐書要』(권96)에 근거하여²⁵⁾ 黑水靺鞨 외에도 그 서북쪽에 思慕靺鞨과 그 정북쪽에 郡利靺鞨, 그리고 東北쪽에 窟說靺鞨, 東南쪽에 莫曳의 여러 靺鞨부락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발해가 통제 장악하고 있었던 발해지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발해국은 본토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부지역의 5개부까지 통제 장악한 대강국”이었다는 것이다.²⁶⁾

아무튼 두 왕조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역의 크기가 아니라, 발해가 고구려의 영역을 대부분 계승하였다는 점이지 않은가 한다. 이 점에서는 중국의 견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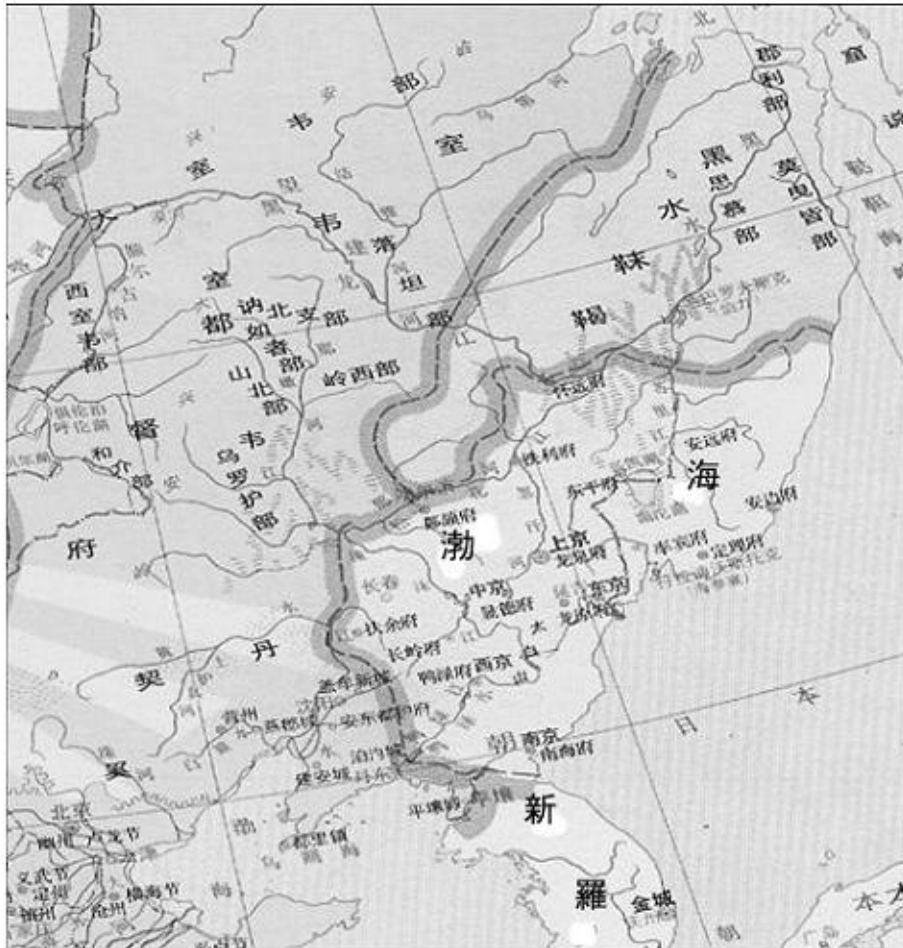
IV. 주민계승에 관한 문제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곧 종족과 주민의 문제이다. 발해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高句麗人이었는가 그들과 다른 靺鞨人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발해를 건국한 大祚榮集團도 말갈인이었는가 아니면 그들과 다른 고구려인이었는가 하는 점도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25) “옛날에 말하기를 흑수의 서북쪽에 사모말갈이 있고 정북쪽에서 동쪽으로 좀 기울어진 방향으로 10일 가는 곳에 군리말갈이 있으며 동북쪽으로 10일 가면 굴열말갈이 있는데 또한 굴열이라고도 한다. 동남쪽으로 10일 가면 막에개말갈이 있다(舊說 黑水西北有思慕靺鞨 正北微東十日程有郡利靺鞨 東北十日程有窟說靺鞨 亦謂之屈說 東南十日程有莫曳 皆靺鞨)”

26) 채태형, 「발해사연구(역사지리3)」, 1998, 97~121쪽.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말갈설을 그리고 남북한과 일본은 이원적 주민구성 내지 고구려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왕조의 상관성이나 계승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민 및 종족구성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4 > 渤海疆域圖 1 (譚其驤主編, 「中國歷史地圖集」, 1982)

발해의 주민구성문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인가 고구려와 다른 말갈의 왕조였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말갈이 고구려와 다른 독자적 종족이었다면, 만주지역에서 부여와 고구려에 이은 또 다른 종족에 의한 왕조의 개창을 의미한다. 그런데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해서는 정작 고구려시대의 주민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거나 무관심속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고구려는 대체로 高句麗族 이외에 沃沮, 濊貊 그리고 渤海史와 직결된 靺鞨 등의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²⁷⁾ 고구려 초

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고구려의 주민 및 종족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고구려초기의 沃沮나 濊 등이 高句麗族 내지 고구려 國民이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올바른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발해사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주민구성 부분이 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기에 고구려 멸망기에도 沃沮나 濊가 고구려 다민족의 주요한 요소인 것처럼 인식하거나, 특히 중국 사서에서 6세기 이후에나 등장하는²⁷⁾ 말갈이 고구려초기부터 있어왔던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발해사의 문제를 꼬이게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고구려사에 있어서는 다수의 주민을 말갈로 보는 시각은 중국에서도 없지 않은가 한다. 그렇다면 발해사의 다수 주인공인 주민들을 고구려와 다른 말갈로 보는 것은 고구려 영역을 계승한 발해국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펴자는 말갈이란 고구려변방인에 대한 卑稱이자 당나라 동북방 주민들에 대한 汎稱이라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²⁹⁾ 고구려사도 700여년간의 시간속에서 종족의 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무심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초기 소수의 '고구려족'이 다른 종족간의 융합없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다가 멸망시에는 대개가 고구려와 다른 말갈족이 되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한다.

아무튼 발해의 주민구성과 관련된 기본 사료는 『隋書』(629~636) 東夷列傳의 靺鞨과 『舊唐書』(940~945) 北狄列傳 渤海靺鞨 및 黑水靺鞨傳과 『新唐書』(1044~1060) 北狄列傳 渤海傳 및 黑水靺鞨傳이 대표적이다. 말갈이 사료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기록은 『北齊書』 武成帝紀 河清 2年條 즉 기원 563년부터였다. 그러나 『三國史記』(1145)는 東明聖王 원년(B.C.37)으로부터 景明王 5年(A.D.921)까지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三國史記』의 말갈 기록 가운데는 중국측 기록과도 같은 말갈이 그대로 전제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新唐書』 등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말갈이 수처에 나오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三國史記』의 말갈 기록은 말갈의 실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주민구성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사료는 일본의 昔原道眞이 편찬한 『類聚國史』(892)이다. '지배층은 고구려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설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석문 자료에서 말갈에 대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흔하게는 당나라 崔忻의 鴻臚井碑의 '靺鞨'이 그것이다.³⁰⁾ 말갈에 대한 글자가 좀 다르지만 이 石刻銘文에 있는 '靺鞨'을 통해 발해의 말갈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

27) 朴京哲, 「高句麗와 濊貊-高句麗의 住民과 그 文化系統-」, 『白山學報』48, 1997.

28) "是歲 室韋車莫奚靺鞨契丹 姁遣使朝貢"(『北齊書』卷7, 武成帝紀 河清 2年AD563條).

29) 韓圭哲, 앞의 「高句麗時代靺鞨研究」 등.

30) 傅朗云, 「渤海土人"新釋"', 『黑龍江社會科學』, 1999-3.

아가 위작설이 있기도 한 일본 宮城縣의 仙台 부근의 多賀城에 있는 이른바 ‘多賀城碑’의 “多賀城去靺鞨國界三千里”라 한 문귀도 또한 분석의 대상이다.³¹⁾ 발해가 말갈을 계승한 왕조라든지, 발해의 국호가 처음부터 말갈이었다는 주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V. 문화계승에 관한 문제

「舊唐書」는 고구려와 발해가 풍속이 같았다고 전하고 있다.³²⁾ 이것은 문화계승에 관한 문헌적 근거로 가장 강력한 기록이 아닌가 한다. 冠婚喪祭 내지 言語까지도 같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왕조의 언어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발해가 말갈을 계승한 왕조였다면 이 기록은 아마 ‘(발해는) 말갈과 풍속이 같다’고 표현되었어야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고구려와 발해와의 관계만을 언급하는 자료만을 남기도 있다.

한편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물질적 자료는 고분과 주거지문화들 들 수 있다. 두 왕조의 문화적 계승관계나 상관관계를 따질 때 주로 이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들의 문화적 속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고구려의 고분·묘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벽화들 수반한 석실분이나 석곽 등 석묘제도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고구려의 전형적인 묘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발해의 묘제로는 고구려적인 石室墳을 비롯해서 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塋室墳과 함께 말갈인들의 전형적인 묘제로 언급되고 있는 土墳墓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³⁾ 한편 고구려의 石系 무덤의 기원에 대해서도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적 전통을 부정하기도 한다. 즉 고구려의 석실분은 漢系 塋室墳의 전통을 이어받았든지,³⁴⁾ 말갈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하여 고구려의 고유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구려계로 일반화되어 있는 석실분의 기원도 말갈의 土墳墓(土坑堅穴封土墓)에서 왔다고까지 한다.³⁵⁾

문화적인 면에서도 ‘靺鞨文化’에 대한 기준과 본질에 대한 해명은 두 왕조의 계승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말갈’의 전형적인 묘제는 구당서 말갈전에 입각하여 토광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및 한국에서도 토광묘하

31) 安倍辰夫·平川南 編, 「多賀城碑—その謎を解く」, 雄山閣出版, 1989.

32) “風俗與高麗及契丹同 頗有文字及書記”(「舊唐書」卷199下, 北狄列傳 渤海靺鞨)

33) 魏存成, 「高句麗渤海墓葬比較」, 「古民俗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0. 鄭永振, 「高句麗渤海靺鞨墓葬形制 比較研究」, 「百濟研究」22, 1991. 鄭永振·嚴長森, 「渤海墓葬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0. 鄭永振, 「高句麗渤海靺鞨 墓葬形制 比較研究」, 延邊大學出版社, 2009.

34) 孫仁杰, 「高句麗石室墓의 起源」, 「高句麗研究」12, 2001.

35) 魏存成, 「高句麗渤海墓葬比較」.

면 곧 말갈문화로 생각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중국과 달리 많은 한국과 일본학자들은 석묘제도의 매장문화는 고구려계로 분류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학계는 석묘제도의 것도 漢系나 말갈계에서 연유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펠자는 토광묘는 인류보편의 매장방식으로 어느 특정 종족을 지칭한 매장문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고구려인들의 대부분도 토광묘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들 고구려와 다른 종족의 말갈인들의 묘제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³⁶⁾ 이러한 주장은 말갈 묘제로 유명한 吉林 永吉 楊屯의 大海猛 古墓群과 吉林 永吉 查理巴와 榆樹 老河深 古墓群들에서도 石墳墓가 나오는가 하면, 土墳墓[土坑墓]도 六頂山 渤海 貴族 古墓群과 琿春의 北大 古墓群과 和龍 龍海 古墓群, 安圖 東清 古墓群들에서도 발굴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던 고구려나 신라의 매장문화에 대한 설명 등은 분명 왕실을 중심으로 하였고, 옥저나 읍루, 숙신, 말갈 등의 것들은 대개 일반 서민들의 문화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건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봄과 여름에는 시신을 매장하였으나, 가을이나 겨울과 같이 추운 때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들의 먹이를 위해 이용하였음은 지리적 환경과 의식주 생활이 그들의 매장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³⁷⁾

또한, 같은 종족계통이라 할지라도 각 시기마다 중국인들의 변방 종족에 대한 정보도 일정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종족 구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중국 주변의 종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肅慎과 挹婁, 勿吉, 靺鞨에 대한 종족명의 변화가 중국인들의 왕조 변천에 따른 인식 변화에 따른 호칭이었던 것이지, 해당 종족들이 스스로 달리 불려왔던 호칭이 아니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고분 문화를 통하여 나타난 발해인들의 대부분은 고구려와 문화적 배경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흑수)말갈인들과 같이 토광묘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고구려와 풍속이 같았다고 하는 것은 발해의 고구려적 계승성과 발해와 흑수말갈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해의 지배층들이 고구려의 지배층과 같은 문화 수준을 갖고 있었던 점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왕조의 상환성에 대한 해명은 당시 주민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릇문화에서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와 발해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토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두 왕조 주민들의 토기가 분석의 핵심이라기보다 이른바 ‘靺鞨罐[말갈단지]’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에 대한 견해들로 집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발해주민들로 여기는 말갈인들이 사용하던 이 靺鞨罐은 돌림판인 輪制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고 燒成度도 낮은 저급의 토기라 할 수 있

36) 韓圭哲, 「古墳文化를 통해 본 渤海國」.

37) “其父母春夏死 立埋之 冢上作屋 不令雨濕 若秋冬 以其屍捕貂 貂食其肉 多得之”(『魏書』卷100, 勿吉)

다. 고구려인들도 이러한 토기를 사용하였을 터인데, 이것들은 대개 ‘高句麗土器’라 하지 않고 ‘靺鞨土器’라 지칭하고 있는 것도 두 왕조의 상관성을 따지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燒成度가 낮은 輪制 土器만을 고구려토기라고 해야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발해토기도 위와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발해인들은 ‘渤海三彩’와 같은 고급 도자기만을 사용하였을 리도 없고, 輪制 고급토기를 주로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高句麗土器나 渤海土器는 희귀하고 靺鞨土器만 다수 존재하는 것은 역사의 모습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他稱·汎稱說의 입장에서 손으로 빚은 이 말갈단지는 변방문화나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그곳이지 이들 ‘말갈’이라는 특정 종족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발해 내지 고구려와 말갈토기의 구분은 대체로 돌림판을 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또는 굽는 온도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발해 삼채와 이른바 ‘말갈판’은 귀족문화와 변방문화의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지배층과 피 지배층문화들 이면적으로 구별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주거문화의 대표적인 온돌문화에 대해서도 한중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 『舊唐書』(卷199上, 東夷, 高麗)에 “(고구려) 일반인의 생활은 대부분 가난하고 겨울철에는 구덩이를 깊게 파서 밑에다 숯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이 기록에 근거하여 한국학계에서는 온돌의 기원을 고구려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그런데 이러한 온돌은 실제로 고구려와 발해유적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해주 여러 곳에서 온돌유지는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集安과 五女山城 등의 고구려유적에서도 온돌이 대거 발굴되었다. 온돌은 중국의 상경룡천부의 궁성 서쪽 ‘침전터’나 북한의 함남 신포시 오매리 발해유적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한편 송기호는 온돌(쪽구들)의 기원은 고구려가 아닌 러시아학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團結-그로우노프가 유지와 같은 북옥저라고 주장하면서 발해의 온돌은 고구려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고 인정한다.³⁹⁾

반면에 중국의 張太湘은 1977년 黑龍江省 東寧縣 團結遺址의 온돌을 발견하면서 이곳을 “地火龍(땅고래)”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벽난로와 온돌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구들 “炕”자가 중국에서 온 女眞語라고 하여 중원과 이곳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한다.⁴⁰⁾ 온돌문화도 동북지역의 일반적인 주거문화의 한 형태이지 고구려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적 계승성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중국학계가 이곳 유지들을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은 발해 만주지역의 고고 유지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38) 정찬영, 「우리 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1966-4.

39) 송기호, 「한국 고대의 온돌-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0) 張太湘, 「東寧考古拾零」, 『黑龍江文物集刊』, 1983-1.

VI. 맺음말

고구려와 발해의 상관계 내지 계승성을 따지려면 다음 몇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구려와 발해의 지역적 계승관계를 도외시하고 다른 논의들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들이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않았을진대, 같은 지역 주민들의 계승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역사적 태도라는 것이다. 농경생활을 하던 고구려인들은 대체로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주민들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 강역의 연구는 발해사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종족과 주민의 상관계와 계승성을 지적함에 있어서 고구려의 주민구성에 대하여 보다 정치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시대 주민들이 고구려인이었다가 발해시대에 갑자기 다수의 말갈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이유들은 고구려시대부터 잉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갑자기 말갈인이 남만주 지역 주민의 다수가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가 천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가 700여년의 긴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여타 종족들이 모두가 고구려국민이 되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발해의 풍속이 고구려와 같았다고 하는 「舊唐書」 기록이 있음에도 두 왕조의 문화적 상관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남북한은 주로 두 왕조의 계승성을 밝히는데 주력했다면, 중국학계는 발해가 말갈왕조였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양쪽의 주장 모두가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말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고구려와 발해의 상관관계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 반대로 말갈을 의식하지 않고 고구려와 발해의 정치·사회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또한 역사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한 과정이다. 어느 쪽이든 학자들의 뒤편은 권력과 편협한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학자적 양심에 의한 연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양심은 포기되어서도 안되며 포기할 수도 없는 至高한 가치이다. 그렇다고 발해사를 발해사적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도 편협한 민족주의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발해사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록의 부재나 한계가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인접국이라는 민족주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학문외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의견들 모두가 잘못이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 나와 있는 견해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한 쪽은 가장 진실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객관적 학문을 위해 한국사적 시각이나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비판하는 것도 이해한다. 다만 한국사적 시각이라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국수주의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구려·발해사를 비롯한 왕조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三國史記』가 쓰여지게 된 원인과 역사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억들은 그것 자체만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인만이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을 자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속에 고구려·발해사의 진실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과도 연관이 있지만, 북한이 발해의 고구려계승성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이후 모든 학문의 기준이 되었던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이 모든 학문의 교조이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성 연구의 본질마저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적인 입장에서 고구려로부터 발해, 그리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 오던 곳이 바로 북한이었고, 왕조적 정통성으로 보더라도 북한지역 주민들은 여진 등으로 비칭되기도 하였지만 고구려와 발해인이었으며, 이들이 또한 고려와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